

各單位會長及總務連席會議  
개최



東友會報

九泳東  
載天泰  
崔尹金  
發行人  
編輯人  
印刷人

發行所  
서울特別市 中区 筆洞  
3街26 東國大学校内  
東國大學校 同窓會  
直通 ②8568  
交換 ②8131~9

本会는 同門相互間의  
友誼增進과 母校發展  
에 기여키 위한 事  
業을 전개한다

## 車主賠償責任保險

# 액보상책임지... : 주주배상책임보험



具慶書

우리母校

東國大學校

今年으로

開校

70周年的

碑文

祝福

跳躍的

章

族的

大學

으로서

고고한

위치를

굳혀온

東國的

大學

建設

을

위해

지혜와

기술

모이는데

一聯의

발전계획

을

줄기자체

추진해나가

고

임상을

본다.

그중에서도

실현하는

後

輩들의

학교재

연구를

위한

基

金

獎學事業은

民

展을

熱望하는

全

東國人

의

未來意志가

아닐수없

다.

獎學制度라고

하는것

은

학부연구에

열의를가

나아가서

社會에

공헌할

수있는

學生들을

보상,

격려키위한

제도인

것이

다.

다행히

「새

역사의

창

조」와 「새東國의

建設」

을

다짐하는

獎學基金을

동이

發火,

모교를

주시

크

우리

全

國人

의

자랑이

기여

모

교

를

방지하고

여하는

후원단체로

또한

모교를

방지하고

여하는

모교에게

여하는

후원단체로

또한

모교를

방지하고

여하는

후원단체로

또한

모교를

방지





# 惠化專門 45年入學同期

◇全盛期의 主人公

◇男女共學制 실시

印地 한반도 英文學하는 基교수와 大班에 장수들이 있다.

마침 美國人이 들어왔어

요. 그래서 서로 人事을

하도록 했더니『나는 英

文學을하고 저사람은 美國人이 아니』고 대답

웃어버리고 말았지요.

◇師弟之間 친숙

弟가 多情多感했어요.

또한 男女共學이 처음

실시돼 여학생이 7~8

명이 있었는데 男學生들을

했어요.

◇東大新聞創刊도

▲金鐘聲『당시 축구는

東大的 地盤을이었어요.

지금은 破立상태지만 그

때『축구==東大』였어요.

어 사현지에다 장의초안

을

주석을

발아주었지요.

▲宋基成도 한 그때

生卒한 데

격동기였어

요. 서울市내 全 학교가

동란학교 金面 休學에들 어갔는데 東大는 좀 异

學生은

한국의 열을계

송. 「溫故而知新」하는데

는 東大가 유통이었지요.

당시 文學作品의 道선동에

東大서 주도권을 잡아

까 서울大 淑明女大 등에서

生들이 많이 펼입한 일

도 있었지요.

▲宋基成『학생들의 氣質과

面에서 그대와 지금과를

비교해 주신다면..

▲宋基成『高麗』『朝鮮』『東進』『東國』등

별별 校名이 다 나왔는데

교 說往來를

그리고 特有의 해방한 지식으로

불만 얹기도 장의를 했

을

정도로

장의를 했

을

한국의 열을계

송. 「溫故而知新」하는데

는 東大가 유통이었지요.

당시 文學作品의 道선동에

東大서 주도권을 잡아

까 서울大 淑明女大 등에서

生들이 많이 펼입한 일

도 있었지요.

▲宋基成『학생들의 氣質과

面에서 그대와 지금과를

비교해 주신다면..

▲宋基成『高麗』『朝鮮』『東進』『東國』등

별별 校名이 다 나왔는데

교 說往來를

그리고 特有의 해방한 지식으로

불만 얹기도 장의를 했

을

한국의 열을계

송. 「溫故而知新」하는데

는 東大가 유통이었지요.

당시 文學作品의 道선동에

東大서 주도권을 잡아

까 서울大 淑明女大 등에서

生들이 많이 펼입한 일

도 있었지요.

▲宋基成『학생들의 氣質과

面에서 그대와 지금과를

비교해 주신다면..

▲宋基成『高麗』『朝鮮』『東進』『東國』등

별별 校名이 다 나왔는데

교 說往來를

그리고 特有의 해방한 지식으로

불만 얹기도 장의를 했

을

한국의 열을계

송. 「溫故而知新」하는데

는 東대가 유통이었지요.

당시 文學作品의 道선동에

東대서 주도권을 잡아

까 서울大 淑明女大 등에서

生들이 많이 펼입한 일

도 있었지요.

▲宋基成『학생들의 氣質과

面에서 그대와 지금과를

비교해 주신다면..

▲宋基成『高麗』『朝鮮』『東進』『東國』등

별별 校名이 다 나왔는데

교 說往來를

그리고 特有의 해방한 지식으로

불만 얹기도 장의를 했

을

한국의 열을계

송. 「溫故而知新」하는데

는 東대가 유통이었지요.

당시 文學作品의 道선동에

東대서 주도권을 잡아

까 서울大 淑明女大 등에서

生들이 많이 펼입한 일

도 있었지요.

▲宋基成『학생들의 氣質과

面에서 그대와 지금과를

비교해 주신다면..

▲宋基成『高麗』『朝鮮』『東進』『東國』등

별별 校名이 다 나왔는데

교 說往來를

그리고 特有의 해방한 지식으로

불만 얹기도 장의를 했

을

한국의 열을계

송. 「溫故而知新」하는데

는 東대가 유통이었지요.

당시 文學作品의 道선동에

東대서 주도권을 잡아

까 서울大 淑明女大 등에서

生들이 많이 펼입한 일

도 있었지요.

▲宋基成『학생들의 氣質과

面에서 그대와 지금과를

비교해 주신다면..

▲宋基成『高麗』『朝鮮』『東進』『東國』등

별별 校名이 다 나왔는데

교 說往來를

그리고 特有의 해방한 지식으로

불만 얹기도 장의를 했

을

한국의 열을계

송. 「溫故而知新」하는데

는 東대가 유통이었지요.

당시 文學作品의 道선동에

東대서 주도권을 잡아

까 서울大 淑明女大 등에서

生들이 많이 펼입한 일

도 있었지요.

▲宋基成『학생들의 氣質과

面에서 그대와 지금과를

비교해 주신다면..

▲宋基成『高麗』『朝鮮』『東進』『東國』등

별별 校名이 다 나왔는데

교 說往來를

그리고 特有의 해방한 지식으로

불만 얹기도 장의를 했

을

한국의 열을계

송. 「溫故而知新」하는데

는 東대가 유통이었지요.

당시 文學作品의 道선동에

東대서 주도권을 잡아

까 서울大 淑明女大 등에서

生들이 많이 펼입한 일

도 있었지요.

▲宋基成『학생들의 氣質과

面에서 그대와 지금과를

비교해 주신다면..

▲宋基成『高麗』『朝鮮』『東進』『東國』등

별별 校名이 다 나왔는데

교 說往來를

그리고 特有의 해방한 지식으로

불만 얹기도 장의를 했

을

한국의 열을계

송. 「溫故而知新」는데

는 東대가 유통이었지요.

당시 文學作品의 道선동에

東대서 주도권을 잡아

까 서울大 淑明女大 등에서

生들이 많이 펼입한 일

도 있었지요.





